

	보도 자료	
---	-------	---

사진 있음 사진 없음

보도 일시	배포 후 즉시	배포 일시	2023. 11. 10 (금) 09:00		
담당 부서	공연장추진단TF	담당자	오세형 단장	02-760-9709	semonemo@kdac.or.kr
			이호선 대리	02-760-9769	leehs@kdac.or.kr

장애예술 공연장 ‘모두예술극장’ 11월 공연
 공연 중 소리 내고 움직여도 되는 연극 <똑, 똑, 똑>
 장애인 · 비장애인 예술가 협업, 다원예술 <제자리>

- 발달 장애 아동 · 청소년 위한 참여형 감각 친화 연극 <똑, 똑, 똑>
- 한국 · 프랑스 공동 기획, 미셸 슈와이저 연출 <제자리>
- <제자리> 11월 23일(목) 15:00 드레스 리허설, 프레스 오픈

지난 10월 24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 국내 첫 장애예술 공연장 ‘모두예술극장’ 이 11월 개관 공연작 두 편을 무대에 올린다.

- 발달 장애 아동 및 청소년, 비장애인 아동 위한 참여형 감각 친화 연극 <똑, 똑, 똑>
- 11월 15(수)~19일(일) 11:00, 16:00 (하루 2회 공연) 선보이는 연극 <똑, 똑, 똑>은 발달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제작한 참여형 감각 친화 공연이다.
- 편안한 환경 속에서 관객이 서로의 신경 다양성을 바라보고 공연에 참여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. 가야금, 리코더, 첼로, 해금, 실로폰 등 다양한 악기로 공연 주제 음악을 변주하고, 오브제를 이용한 단순한 놀이로 서로의 감각에 집중한다. 또 빛으로 만드는 예술적 변형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다.
- 공연과 공연장에 대한 낯섬을 줄이기 위해 공연 관람 계획부터 관람 후 활동까지, 전 과정을 예술적 체험으로 생각하고 관객에게 세심하게 접근하기 위해 노력했다.
- 공연 음악 및 출연진 움직임 영상 등 공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공연 내용을 쉽게 설명하며 공연 중에도 소리를 내거나, 움직일 수 있는 편안한 공연, 릴렉스 퍼포먼스로 진행한다.
- 한편 <똑, 똑, 똑>을 준비한 극단 북새통은 2002년 창단 이후 <가문장아기>, <재주많은

다섯친구>, <코리아 웨이크>, <봉장취>, <행복한 왕자> 등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. ‘전문성이 있는 아동·청소년극의 창작’, ‘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모색’, ‘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진정한 문화 찾기’를 실천하며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.

- 한국·프랑스 공동 창작, 본연의 나를 찾아가는 다원예술 공연 <제자리>
- 11월 24(금/19:30)~25(토/15:00)일 이틀간 무대에 오르는 공연 <제자리(Jejeri/In-situ)>는 모두예술극장 해외 초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한 한국·프랑스 공동 창작 작품이다. <제자리>의 연출을 맡은 미셸 슈와이저는 프랑스 극단 라 콤마(La Coma)의 연출가이자 안무가로 한국 출연자들과 함께 출연자 개개인과 한국의 특성을 바탕으로 공연을 만들었다.
- 공연이 진행되는 현장의 요소들로 공연을 만드는 ‘인시추(In-situ)’ 형태를 기반으로 질문과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나만의 ‘자리’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있는 개인의 취향에서부터 ‘나’라는 사람의 기원, 즉 본연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.
- 프랑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극단 라 콤마를 창립한 미셸 슈와이저는 공연 예술과 시각 예술의 경계를 오가는 작품 활동으로 특정 장르에 한정되지 않는 연출을 해오고 있다. 그동안 무대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다양한 사회 모습을 반영하는 인물을 조명하며, 개인이 마주하는 사회 현실에 대해 질문한다.
- 11월 24(금/19:30)~25(토/15:00)일 공연하는 <제자리>는 문자 통역이 함께 제공된다. 토요일 공연 후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된다.
- 앞서, 11월 23일(목) 15:00 진행되는 드레스 리허설은 **프레스 초청공연으로** **오픈**한다.

<제자리> 드레스 리허설 기자초청 안내

일시 : 11월 23일(목) 15:00

장소 : 모두예술극장(서울 서대문구 충정로7 2층)

일정 : 14:30~15:00 Tea Time (모두라운지)

15:00~15:50 드레스 리허설 (공연장)

15:50~16:30 연출가 미셸 슈와이저 Q&A

□ 10월 24일 개관한 국내 첫 장애예술 공연장 ‘모두예술극장’

- 한편 지난 10월 24일 개관한 모두예술극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2018년 설립을 추진해,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구세군빌딩 아트홀을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으로 전면 개보수한 곳이다.
- 휠체어석 좌석 수 상황에 맞춰 가변 조정한 250석 규모의 블랙박스 공연장을 비롯해 연습실 3개, 스튜디오 1개, 분장실 4곳 등이 마련돼 있다. 모든 공간은 휠체어 등 장애인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차 없이 설계됐다. 시각·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 표지와 시설은 물론 공연별 자막·음성·수어 해설을 지원해 시각·청각·발달 및 학습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로 관람할 수 있다.
- 모두예술극장은 앞으로 창작레지던시와 교육 공간, 소규모 공연과 시연회가 가능한 창작 스튜디오, 공연단체의 활동 편리를 위해 연습실과 분장실로 활용해 ▲ 장애 예술가의 창작을 촉진하는 한편 ▲ 장애예술과 관련해 접근성 서비스 전문가 과정 등 인력 육성에도 나선다. 아울러 ▲ 다양한 배리어프리 공연을 선보이고 장애예술인과 단체에 우선 대관, 사용료 할인을 제공해 장애예술인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.



이 자료는 상업적·비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,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합니다. 단, 반드시 모두예술극장 제공이라는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공연 포스터 <똑, 똑, 똑>



▲ 연극 <똑, 똑, 똑> 포스터 [모두예술극장 제공]

붙임 2 공연 포스터 <제자리>



▲ 공연 <제자리(Jejari/In-situ)> 포스터 [모두예술극장 제공]

붙임 3 공연 사진 <똑, 똑, 똑>



▲ 연극 <똑, 똑, 똑(Ttok, Ttok, Ttok)> 무대 [모두예술극장 제공]

붙임 4 공연 사진 <제자리>



▲ 공연 <제자리(Jejari/In-situ)> 무대 [모두예술극장 제공]

붙임 4 공연장 사진



- ▲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구세군빌딩 아트홀을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으로 전면 개보수한 모두예술극장 [모두예술극장 제공]